

가정예배 자료집

FAMILY DAY



2020-10·11·12

<격동하는 시대 믿음의 가정 세우기>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10·11·12월호 소개 - 격동하는 시대 믿음의 가정 세우기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10.04 ~ 10.10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1: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	12
2주	10.11 ~ 10.17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2: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14
3주	10.18 ~ 10.24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3: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16
4주	10.25 ~ 10.31	그리스도인의 비전,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18
5주	11.01 ~ 11.07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24
6주	11.08 ~ 11.14	위기 속에도 붙드시는 하나님	26
7주	11.15 ~ 11.21	감사를 잊지 않는 신앙	28
8주	11.22 ~ 11.28	서로를 향한 감사	30
9주	11.29 ~ 12.05	작은 감사로 나누고 채우는 역사	32
10주	12.06 ~ 12.12	성탄, 그 희망의 메시지	38
11주	12.13 ~ 12.19	성탄, 그 기다림의 메시지	40
12주	12.20 ~ 12.26	성탄, 그 믿음의 찬양	42
13주	12.27 ~ 01.02	이미 그러나 아직	44

교육부 주요활동	48
----------	----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격동하는 시대 믿음의 가정 세우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이사야 43:19 **

〈본질적 믿음을 세워야 하는 시기〉

올 한 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와 함께 지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과 보건의 문제이지만 사회와 세계 전체를 뒤흔들고, 각 개인과 특히 각 가정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와 교회 공동체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 와중에 각 가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일 예배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변화, 교회 모임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질문이 새롭게 던져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비단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질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인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사회와 시대의 급격한 변동 앞에서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향한 이 질문에 더 본질적으로 응답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과거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중세 유럽의 변동 시기에 ‘종교개혁’이라는 본질적 응답으로 신앙의 개혁과 교회를 세웠던 때와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가정예배책자는 특별히 10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며 가장 핵심적 신앙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부르심과 비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가정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하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일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감사, 서로를 향한 작은 사랑과 격려와 수고에 감사하며 감사의 역사를 간직하는 11월의 가정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참된 소망이 필요한 이때, 참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품는 대림절의 시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우리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성탄의 시간이 되도록 12월 가정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매주 한 주간, 한 주간을 넘기기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오래 지속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로 영적 침체에 빠져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다시 매번의 가정예배가 각 가정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 되게 하며,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본질적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의 다음세대,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에베소서 2:1-5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10 OCTO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추석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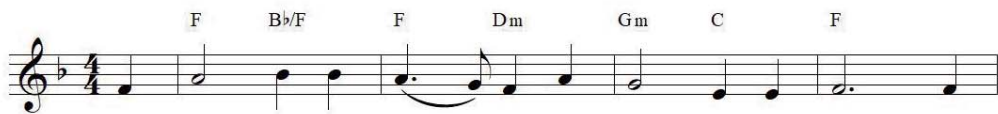


이달의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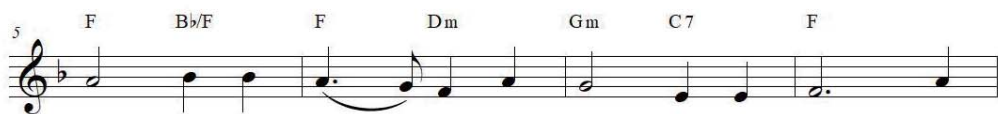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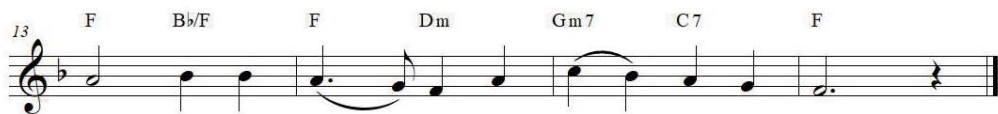
1. 내 주 되신 주 - 를 참 사 랑 하 고 곧
 2. 주 날 사 랑 하 - 사 구 하 시 려 고 저
 3. 내 평 생 에 힘 - 쓸 그 큰 의 무 는 주
 4. 큰 영 광 의 구 - 주 날 사 랑 하 사 그



그 에 게 죄 - 를 다 고 하 리 라 큰
 십 자 가 고 - 난 당 하 셧 도 다 그
 예 수 의 덕 - 을 늘 기 리 다 가 숨
 풍 성 한 은 - 혜 더 하 시 리 니 금



은 혜 를 주 - 신 내 예 - 수 시 니 - 이
 가 시 관 쓰 - 신 내 주 - 베풀 오 니 -
 질 때 에 라 - 도 내 할 - 말 씀 이 -
 면 류 관 쓰 - 고 늘 찬 - 송 할 말 -



전 보 다 더 - 욕 사 랑 - 합 니 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1: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

에베소서 2:1-5



이달의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1p



말씀읽기 - 에베소서 2:1-5

- 0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 0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 0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 0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 0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나누어 봅시다.
- Q2.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어떻게 나눠야 할 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우리는 허물과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기도 하며,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따르는 불순종에 빠진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2: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베드로전서 1:14-16



이달의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1p



말씀읽기 - 베드로전서 1:14-16

-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순종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Q2.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오늘 본문은 흠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에 빠져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사랑해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슬픈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3: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9-10



이달의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1p



말씀읽기 - 베드로전서 2:9-10

- 0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생각하기

- Q1.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누어 봅시다.
- Q2.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신다면, 어떤 것을 가장 드리기 어려울 것 같나요?



말씀듣기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①택하신 족속, ②왕 같은 제사장, ③거룩한 나라, ④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나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사야 58:6-8



이달의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1p



말씀읽기 - 이사야 58:6-8

- 0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 0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0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생각하기

- Q1. 형제자매나 친구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그 일에 대하여
말씀 드려야 했던 때를 생각하며 이야기 해봅시다. 그때 형제자매나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 Q2.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
일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첫째 형, 누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첫째가 된 형, 누나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
움을 겪을 때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어 노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자가 어린양과 아무런 문제없이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어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자는 어린양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자는 결코 강한 힘으로 약한 대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힘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자신의 앞에 엎드려 있던, 자신을 판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을 용서하였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의 근원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1 NOVEM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희망의 노래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G D/F# Em7 Dm7

감 사 드 리 세 우 리 주 께 — 크 신 사 랑 베 푸 — 셧 네 — 찬 양 드 리

5 C G/B Am7 1. D

세 어 — 린 양 께 — 영 원 영 원 히 — 감 사 드 리

9 2. C/D D C/D D G F#m7(b5) B7 Em7

감 사 해 — 고 통 과 눈 — 물 없 는 곳 열 — 어 — 주 시 리

13 G/D G7 C Bm7(b5) E7 Am7

— 감 사 해 — 모 든 만 물 — 새 롭 게 되 는 — 그 — 날 주 시

17 C/D D G F#m7(b5) B7 Em7

리 그 날 에 — 열 방 과 모 — 든 민 족 들 주 — 찬 — 양 하 리

21 E/G# Am G/B C D7 G

— 새 하 늘 — 과 새 땅 에 — 그 날 기 뻔 노 래 하 리 —

11/1-7

1주 가정예배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4:7-10



이달의 찬양 <희망의 노래> 23p



말씀읽기 - 고린도후서 4:7-10

- 0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0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0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10 우리가 항상 예수 of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기

- Q1.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Q2. 힘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최종 승리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8-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도 빛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 무엇도 해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⁷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8-14

2주 가정예배

위기 속에도 붙드시는 하나님

시편 3:1-8



이달의 찬양 〈희망의 노래〉 23p



말씀읽기 - 시편 3:1-8

- 0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 0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 0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 0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다 (셀라)
- 0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 0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 0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 0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생각하기

Q1.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나눠봅시다.

Q2. 그 캄캄한 터널과 같던 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봅시다.



말씀듣기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되었지만 결코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이 순탄치는 않았습
니다.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왕의 자리였지만 오히려 더 막대한 책임감과 유혹들이 엄습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는 너무도 가슴 아픈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아
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혈족인 사랑하는 아들
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뿐만 아니라 자식
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자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
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은 아이러니하게도 탄식을 해야 할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와 나
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
고 고백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
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악령들린 사울로부터 피할 때에도, 갈
곳 없는 300명의 백성들을 책임지며 들 속과 동굴 속으로 도망 갈 때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
험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 그의 몸으로 체득 된 믿음은 그저 나의 인생이 탄
탄대로 일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없
는 고백들을 역설적으로 내뱉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루
고 싶은 것을 전전공공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 말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에, 불가능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나의 삶이 절벽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악인이 나를 모욕하고 세상이 나를 배반하여도, 주님께서서는 나의 방패
이심을,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
소서. 저는 이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고사를 잊지 않는 신앙

누가복음 17:11-19



이달의 찬양 <희망의 노래> 23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7:11-19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생각하기

Q1. 최근에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Q2.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다를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열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멀리 서서 “금홀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나음을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다른 아홉 명의 사람들은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 자신이 깨끗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아가려는 사마리아인을 향해 온갖 멸시와 욕을 했을 것이고, 이방인인 주제에 잘난 체 한다고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22-28

4주 가정예배

서로를 향한 감사

에베소서 2:20-22



이달의 찬양 <희망의 노래> 23p



말씀읽기 - 에베소서 2:20-22

-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생각하기

Q1. 나의 삶을 세워주고 지켜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감사한 분들을 어떤 이유로 떠올리게 되었는지 서로 나누어보세요.

Q2. 그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거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말씀듣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 에베소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에베소 교회도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서도 각종 차이와 차별 등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각종 차별과 차이를 없애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노력이 밑바탕(터)이 되어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각종 차이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벽과 벽을 잇는 모퉁잇돌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가장 밑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며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또 이를 위해 각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29-12/5

5주 가정예배

작은 감사로 나누고 채우는 역사

요한복음 6:9-13



이달의 찬양 <희망의 노래> 23p



말씀읽기 - 요한복음 6:9-13

- 0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생각하기

- Q1.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Q2.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주었던 경험을 떠올려봅시다. 그 중에서 가장 나눠주기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왜 나눠주기 어려웠을까요?



말씀듣기

잠시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가봅시다. 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덧 다들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없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산 위에서 음식을 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턱없이 부족했던, 너무나도 적고 보잘 것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 혹은 ‘감사를 돌린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잘 것 없는 것을 가지시고는 그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너무나도 작은 감사였지만, 감사가 있었기에 사람들과 풍성히 나눌 수 있었고 또 주렸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감사는 나눔의 역사를, 채움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의 작은 감사도 나눔의 역사를, 채움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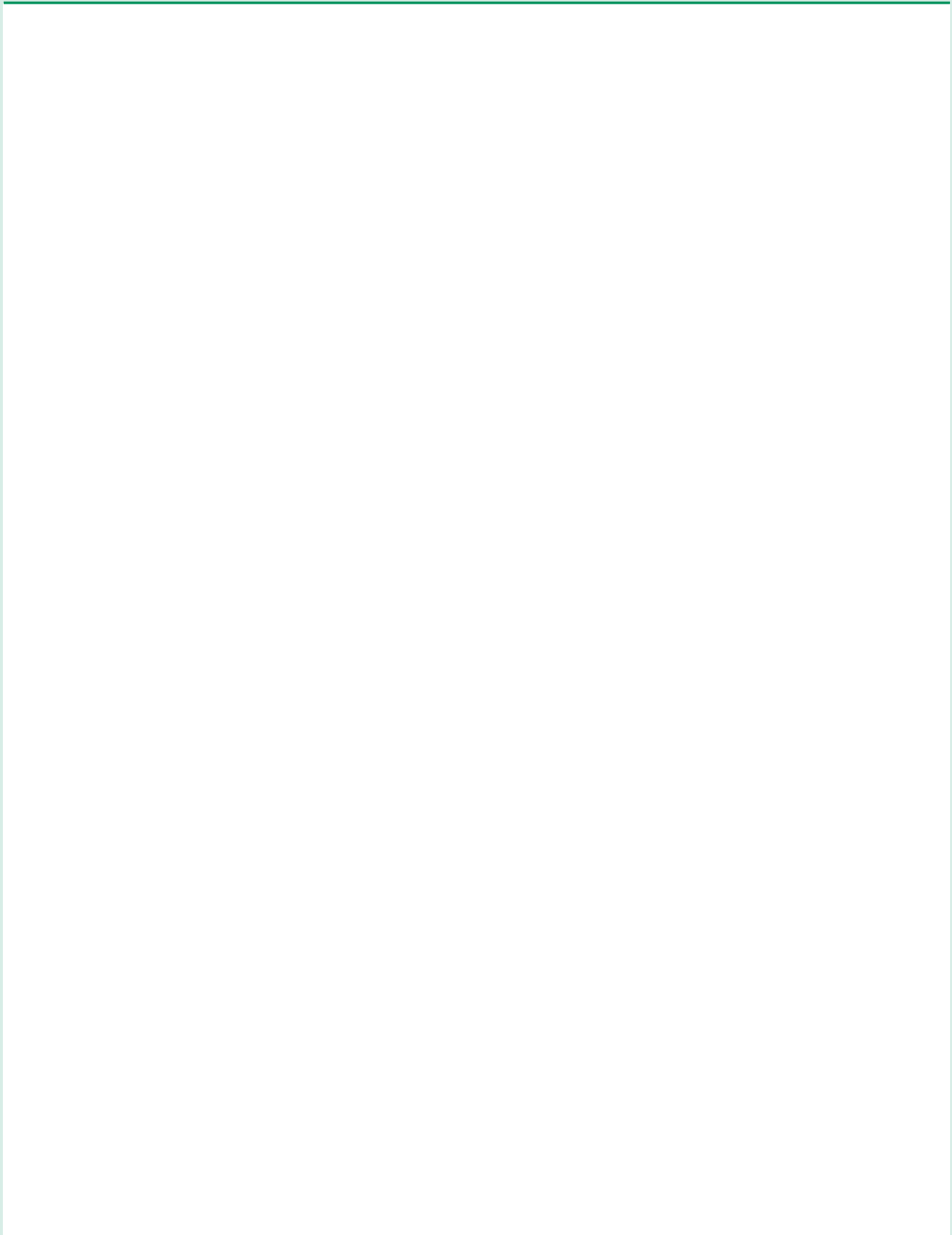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 나눔의 역사가,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2 DECEM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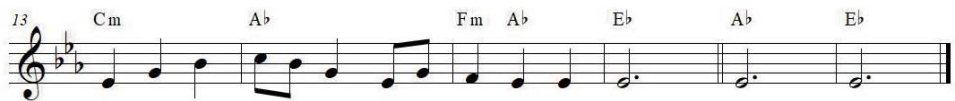
1. 내 맘 의 - 주 여 소 망 되 소 서
2. 지 혜 의 - 주 여 말 씀 으 로 서
3. 세 상 의 - 영 광 나 안 보 여 도
4. 영 원 한 - 주 님 내 승 리 의 주



주 없 이 모 든 일 헛 되 어 라
언 제 나 내 안 에 계 십 소 서
언 제 나 주 님 은 나 의 기 업
하 늘 의 기쁨 을 주 옵 소 서



밤 에 - 나 - 낮 에 나 주 님 생 각 -
주 는 - 내 - 아 버 지 나 는 아 들 -
주 님 - 만 - 내 맘 에 계 시 오 니 -
어 떠 - 한 - 고 난 이 닥 쳐 와 도 -



잘 때 나 께 - 때 함 - 께 하 소 서 아 멘
주 안 에 내 - 가 늘 - 함 께 하 네
영 원 한 주 - 님 참 - 귀 하 셔 라
만 유 의 주 - 여 소 - 망 되 소 서



성탄, 그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 9:1-7



이달의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37p



말씀읽기 - 이사야 9:1-7

0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0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0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0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0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켜 같이 사라지리니 0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0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생각하기

- Q1. 내 삶에서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주셨던 경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Q2. 이사야 시대의 고통과 흑암의 상황은 현재에도 여전히 있는 고통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나누어봅시다.



말씀듣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흑암의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두움이 걷힐 날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하나님께서 기드온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침으로 갈릴리 지역과 북쪽 지역을 해방하셨듯이, 북이스라엘에서 앓시리아의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흑암 속의 빛이며, 평강의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던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성탄, 그 기다림의 메시지

누가복음 2:25-33



이달의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37p



말씀읽기 - 누가복음 2:25-33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생각하기

- Q1.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 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간절히 기다리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분은 어떠했나요?
- Q2. 오랜 시간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씀듣기

오랜 시간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과 구원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장난감, 게임, 맛있는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이달의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37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46-55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성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54 그 중 이 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생각하기

- Q1.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나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나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 Q2.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말씀듣기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불만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마리아의 삶 가운데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낮아짐과 순종, 찬양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사야 43:15-21



이달의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37p



말씀읽기 - 이사야 43:15-21

-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 1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각하기

- Q1. 지금까지 지나온 삶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
- Q2.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의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써 이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말씀을 의지한다면, 희망의 미래를 꿈꾸며 매일 매일을 찬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새로 시작하는 2021년을 이 믿음과 기도로 준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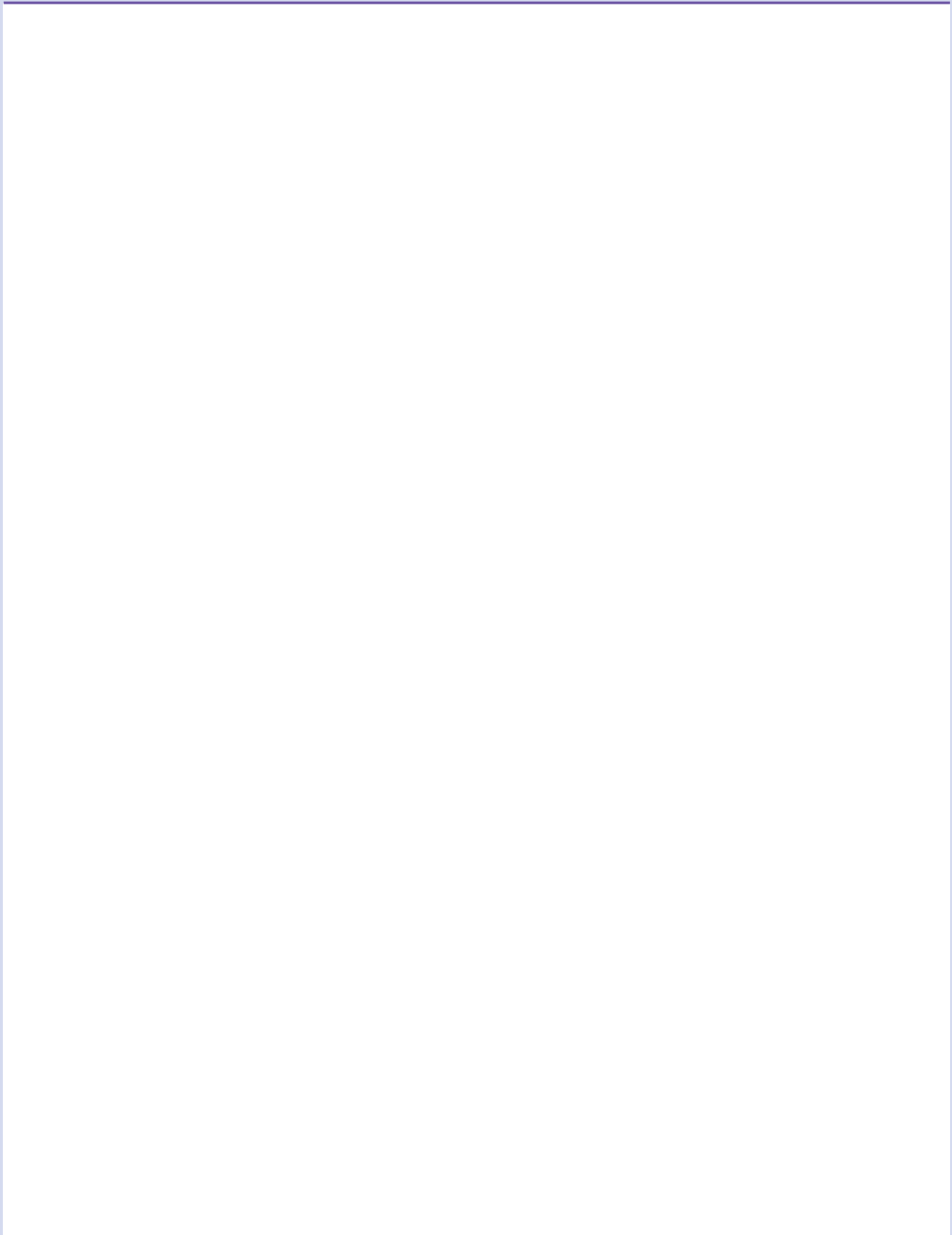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해의 멋진 날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0·11·12월 교육부 주요활동

교육부

신입교사교육 종강	11/22
-----------	-------

사랑부

사랑부 온라인 주말학교	10-11월
--------------	--------

영아부

유니게학교 1단계 조이스쿨 온라인	11/7-28
--------------------	---------

유아부

유니게학교 1단계 조이스쿨 온라인	11/7-28
--------------------	---------

유치부

유니게학교 1단계 조이스쿨 온라인	11/7-28
--------------------	---------

유년부

아동부 온라인 주말학교 (Family in the story) 가을학기	10/10-31(매주 토)
---	----------------

초등부

아동부 온라인 주말학교 (Family in the story) 가을학기	10/10-31(매주 토)
---	----------------

소년부

아동부 온라인 주말학교 (Family in the story) 가을학기	10/10-31(매주 토)
---	----------------

CEBC

-

중등부

YDT	10/10-12/12(매주 토)
온라인 그루터기	10/17-12/19(매주 토)

고등부

입시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매일 기도회	9/14-12/2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	11월

베드로부

15일 변화 프로젝트 #2	11/1-15
수능기도회	11/22, 2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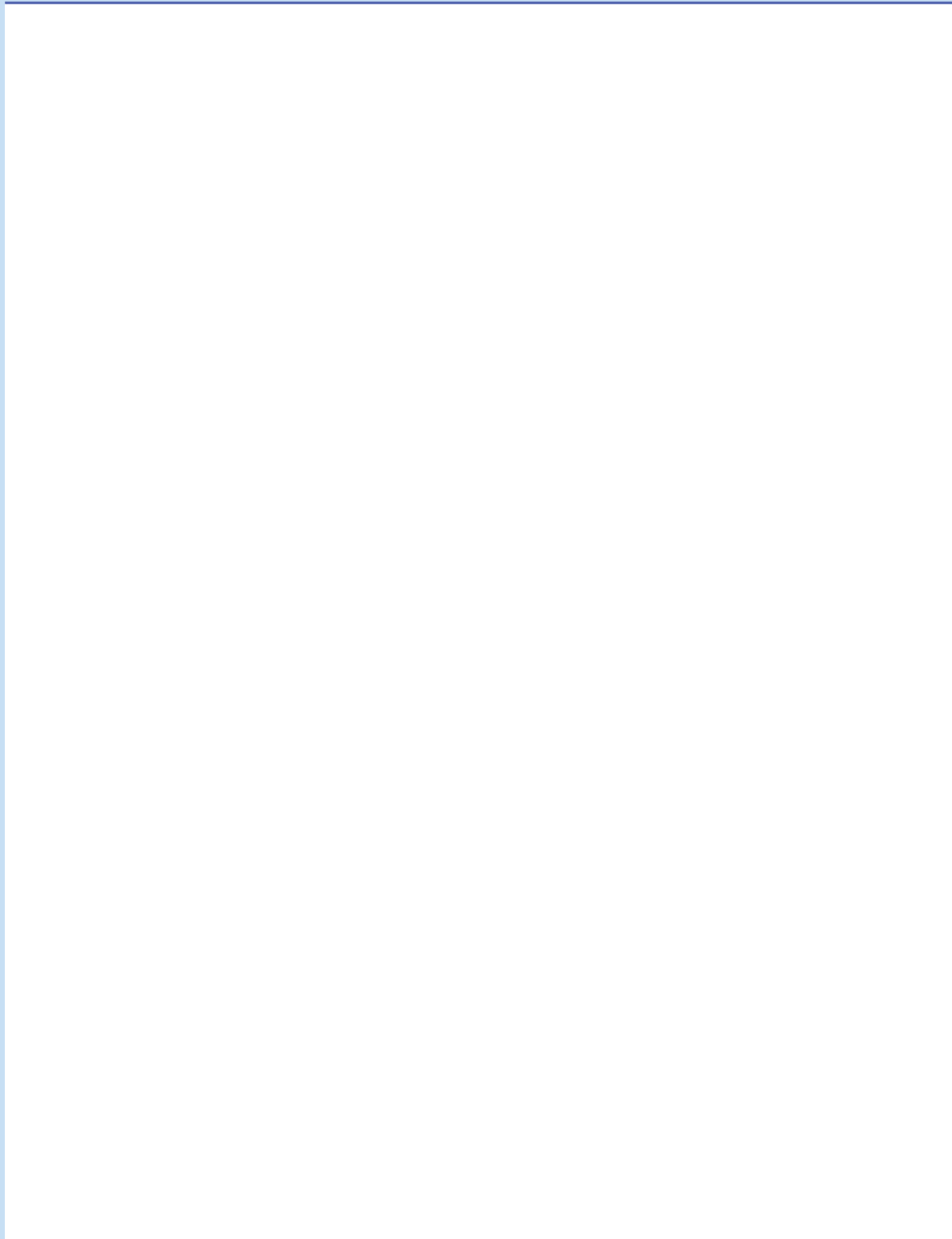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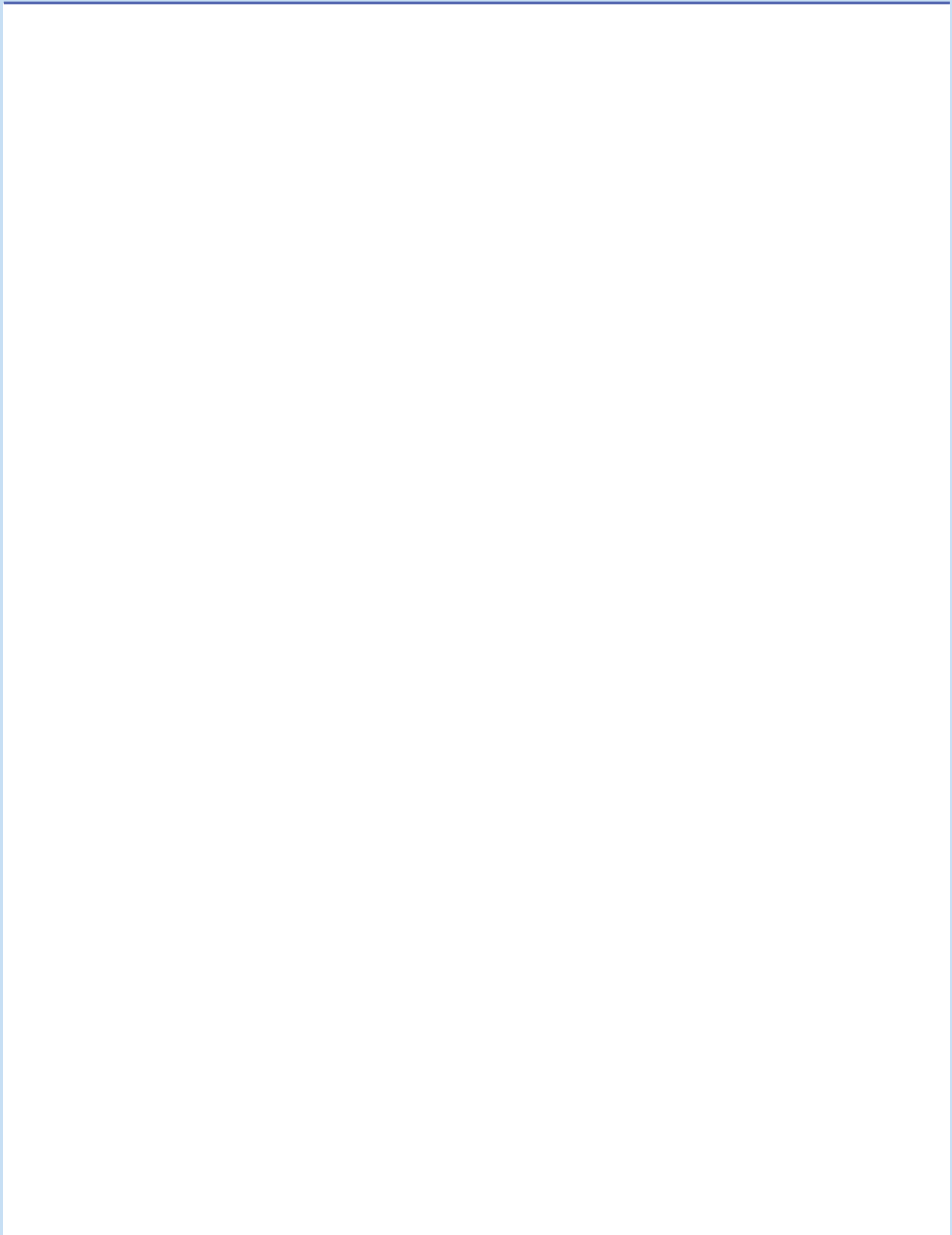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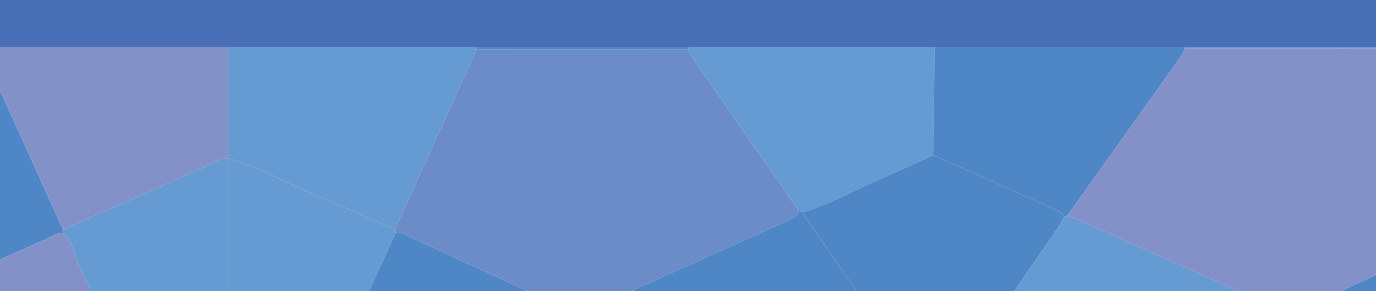
LTS(리더양육 8주과정)	10-11월
리더블레싱	12/6
성탄행사	12/20

청년부

청년부 온라인 양육	10월
정기총회	11/1

메모 MEMO





발행통권 | 27호
발 행 일 | 2020년 10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백성우, 이영철
편 집 인 | 지기원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